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호 【루게 제25149호】 주제 105 (2016)년 1월 6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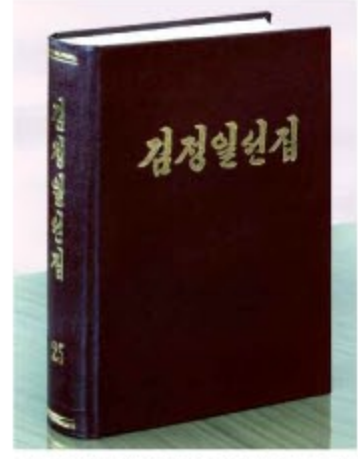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안경호 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의서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5일 고인의 명전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훈장 수훈자이며 조국통일상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나라 단체인 1일과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조선파의 친선협회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체 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신년사를 하신다》라는 표제 밑에 신년사 전문을 올렸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기본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문제 전문가들은 해마다 김정은 원수의 신년사를 상세히 연구하면서 그것이 국제 및 국내정세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원수의 2016년 신년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몇 달 앞둔 것으로 하여 특별히 주목되고 있다. 김정은 원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안하기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청년, 교육문제도 그의 신년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5권 출판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령도에 대한 리론이 고전적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 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임무》에 명시되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새혁명의 로동계급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혁명은 주체의 한걸음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과 혁명의 정치사상적, 계급적지침을 굳건히 다지고 당의 선군령도파와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더욱 강화하며 당 조직들과 당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강령적지침들을 천명하시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자.》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26호보급기대 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26호보급기대 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실비 판리, 기술관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영웅적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투쟁기풍으로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해나갈 높은 혁명적열의를 안고 모여온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แน่น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 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당 제7차대회》, 《자강혁명일주의》 등의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강성조선의 매일을 앞당기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등의 구호를, 글발들과 조선로동당이, 공화국기가 광장주변 건물들에 드리워져 있었다. 김정은 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박법기 동지, 오수용 동지, 로두철 동지와 내각부총리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당, 행정, 근로단체, 기관, 대학, 공장, 기업소, 농장일꾼들, 영웅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김정은장군환가》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으로 부르는 전투적기치, 오늘날의 총진군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지난해는 뜻깊은 사면들과 경이적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엄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다 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처럼 떨쳐나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신물들을 마련하였으며 당장전 일흔흔 계속행사를 통하여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결같이 똬뚱한 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진을 단련하여 과시하시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민족 앞에 닥치는 전쟁의 위협을 막고 공화국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주체혁명의 혈통, 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번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야 합니다.》

보고자는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국의 맨 앞장에서 시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리와 비상한 애국의 열의를 총폭발시켜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생산적임양의 불길울 세차게 지펴올리며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경공업장소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

제품, 명산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당의 건설방법과 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시대의 본보기, 표준으로 되는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는 한편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이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수도의 당조직들은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배후의 혁명정진, 배후의 칼바람정진을 베풀고 새긴 사상의 강자들 못느니 준비시키며 수명의 유희관정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수뇌부가 자리잡고있는 수도에서 살며 투쟁하는 크나큰 궁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굳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 가는 참된 선군혁명투사가 되어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는 데 큰 힘을 쏟으며 항로방위를 위한 단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할것이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고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전바람을 일으켜 수도에 건전하고 명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팔잡이 펼쳐나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한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지배인 전창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디에 받아안은 수도의 전체 로동계급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돌격전에 신약같이 떨쳐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갈 공로로 로동계급의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바람,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풍우유를 비롯한 뜻깊고 영양가높은 어린이식료를 높이 발휘하여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업혁명방침대로 모든 농사일을 진행함으로써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농장의 기후후토에 맞는 우량종종의 알곡작물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두벌농사면적을 더욱 높이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질 좋은 거품을 팽방 생산하여 모든 포전을 육으로 만들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새로운 모기르기방법을 비롯한 신진농법과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과 남새의 정보당 수확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양외와 축산, 비석생산을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당의 사랑과 은정이 어린이들에게 내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새로운 모기르기방법을 비롯한 신진농법과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과 남새의 정보당 수확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양외와 축산, 비석생산을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당의 사랑과 은정이 어린이들에게 내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새로운 모기르기방법을 비롯한 신진농법과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과 남새의 정보당 수확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양외와 축산, 비석생산을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당의 사랑과 은정이 어린이들에게 내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심하고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봉전을 한다면 원수적의 성전에 신약같이 떨쳐일어나 침략자들을 쫓아내 버릴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청년들이 배후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는 당의 구호를 베풀고 깊이 조아리고 배후산영웅청년3호반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적전장들과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꾸리기 위한 전투장마디에서 청춘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선군청년문화, 사회주의도덕과 미풍이 활짝 꽃피게 하며 청년동맹조직들을 쇄소리하는 전투로 든든히 꾸리고 청년들을 총공격전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배후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문팔일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게 하자는 당의 구호에 우렁차게 화답하며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붉은기름 높이 들고 부후당원들이 내아가는 시위 참가자들은 부다치는 예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갈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웠다.

평양시군중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희를 철저히 관철하며 배후의 혁명정진, 배후의 칼바람정진을 베풀고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우리 인민의 절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기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했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회가 끝난 다음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일심단결》,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기관차》, 《조국통일》 등의 구호들이 크여진 프랑카드와 손구호들을 들고 힘찬 취주악에 맞추어 기세드높이 광장을 누벼나갔다.

이러니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오늘의 총진군에 총력기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해 새해전투에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풍이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평양을 진감하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시!》를 위함자들은 부다치는 예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갈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웠다.

평양시군중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희를 철저히 관철하며 배후의 혁명정진, 배후의 칼바람정진을 베풀고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우리 인민의 절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이 안아온 인기제품

평양대성보석공장에서

지난해 12월 평양대성보석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보석품들이 12월 15일 품질메달이 수여되었다.

그것은, 낱주머니 등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즐겨 사용하던 제품이다. 민족의 넋이 어려있는 보석품의 질적수준이 발전하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대단히 높아졌다.

우선 신선로, 국수그릇 등 보석품들이 가벼워졌고 아름다운 색깔과 광택, 섬세한 장식부각은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보석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지며 생산을 따라올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된 박람회에서도 보석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은 대단하였다.

어떻게 되어 공장의 보석품들이 당당히 인기제품으로 뽐수 있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대답은 한목소리였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면서부터였다.

하다면 제품의 질적비약을 안아온 국산화는 어떻게 실현된것

였고 그릇의 결면만이 아니라 안쪽면도 광택이 나면 사용할 때 한결 기분이 좋을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인민의 요구는 정당하였다.

보석품을 경량화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소제공정의 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논의를 거듭했다. 방도는 주물 의 방법에서 벗어나 압연하여 늘리기방법을 도입하는것이든 수입원료는 취성이 강하여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러하여 용해공정에서부터 원료를 경신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배인은 우리 선조들도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 흔한 청동으로 보석품을 만들어냈는데 남의 원료를 쳐다볼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원료로 손색이 없는 보석품을 만들어낼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내밀어보자고 호소하였다. 당조직의 방조밑에 한 용해공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 면제를 맺고 이악하게 노력한 끝에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를 선정하였고 합리적인 원료배합비율을 찾아내게 되었다.

용해공정에서의 원료국산화 과정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애국

의 정신을 자각하게 한 좋은 계기였다.

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압연, 도금, 가공 등 모든 공정에서 우리의 원료에 의한 새 공정확립에 떨쳐나섰다.

소제공정의 생산자들은 금속을 구기를 손색없이 하기 위하여 기발한 착상으로 선반에 형태를 설치하여 두께가 얇은 금속판도 손쉽게 설비를 개조해놓았다.

도금공정의 생산자들 또한 그릇의 안쪽면도 광택이 나면 좋을것이라는 인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도금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여 그릇의 결과안을 다같이 연마할수 있게 해놓았다.

모든 공정마디에서 국산화의 열풍은 세차게 타나갔다.

세공작업에서는 압연한 얇은 금속판을 땀할수 있는 플라 광택제를 우리의것으로 제조하여 자체의 국산화도 실현하였다.

이렇게 원료, 자재, 설비가 국산화된 새로운 생산공정에서 첫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생산자들이 제품이 쏟아지는 정성 또한 몰라보게 달랐다. 그 누구라 할것없이 품질관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생산공정을 확립해보니 기술적과일이 그 누구에게나 한화였고 제품에 대한 애착심은 더욱 강렬해졌다.

세공작업 생산자들이 앉아서나 장식부각을 더 아름답게 할 방도를 찾기 위해 속수편을 하고 합리적인 세공공구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겐서는 볼수 없는 기풍이었다.

품질일군들은 품질관리의 진정한 주인이 된 로동자들의 열의를 훌쩍 받들기 위한 사업을 방방뿔듯 해나가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정치적평가를 앞세우고 물질적평가를 잘해주는 일군들의 사업방법은 생산자들의 가슴속에 자기 일터에 대한 긍지를 더욱 깊이 심어주고 있으며 제품의 끊임없는 질적발전을 안아오는 무궁무진한 지혜를 낳게 하고있다.

국산화의 열풍이 자그마한 세공생산단위에서부터 타나져서 인민앞에, 조국앞에 자기 얼굴이 뚜렷한 인기제품을 내놓게 된 현실은 우리 당의 국산화방침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한다.

세해부터부터 각지 단면들에서 생산적임양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고 떨쳐나선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덕천, 북창, 천내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 탄전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드센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평안남도, 강원도의 일군들은 석탄증산투쟁으로 들끓는 막강들에 들어가 탄부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불려일으키는 화성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서부지구탄전의 탄부들이 당

의 의대로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보장할 열의안고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제남탄광의 로동계급이 배후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폭풍쳐 내달리는 명렬한 돌격정진을 발휘하며 앞장서 전진하고있다.

탄광에서는 중대간, 교대간 긴밀한 협동작전을 벌리면서 생산을 완강히 내밀어 첫날 석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탄부들이 과감한 돌격정진으로 매일 계획을 10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높은 굴진속도를 보장하고있는 남덕탄광을 비롯하여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산의 여러 탄광들에서는 작업굴진과 채탄의 힘을 넣어 생산을 높였다.

천내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문천탄광, 천내탄광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이곳 탄광의 탄부들은 갱과 중대, 소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연속탄광, 연속채탄을 통하여 생산계획을 훨씬 초과완수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를 기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민족공동의 합의는 북남관계개선의 토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감에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상이며 온 겨레는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어 통일 이전의 전향적면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감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이 나아갈 길을 확실히 명시해주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새로운 신심과 헌배의 용기를 북돋아주셨습니다.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것은 장정 70여년새 나라의 분열로 인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음대로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이상 미룰수도, 방치해둘수도 없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북남관계개선은 반민권의 유구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질이나 통일에 대한 거대한 한결같은 지향과 강렬한 열망으로 보나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북남관계개선을 민족변영의 통일대상이 있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40여년전부터 7.4 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하였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새 세기 자주통

일의 리정표도 세워놓았다. 이어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통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도약을 마련하였다. 지금도 우리 민족은 6.15가 열어준 래왕과 접촉, 화해와 단합의 길을 따라 각계각층이 북과 남으로 오가며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누구나 통일에 대한 희열로 들끓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루빨리 그런 시기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있다.

북과 남은 마땅히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 남에 맞게 민족공동의 합의에 토대하여 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총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북남관계개선의 길, 자주통일의 대문호가 있다.

민족공동의 합의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이다.

북남선언들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가는데서 그 무엇보다도 대인할 수 없는 북남관계의 고위문제는 반민권의 유구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질이나 통일에 대한 거대한 한결같은 지향과 강렬한 열망으로 보나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북남관계개선을 민족변영의 통일대상이 있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40여년전부터 7.4 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하였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새 세기 자주통

한, 대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우리가 조국해방 일흔살과 6.15 공동선언발표 15돐을 계기로 해외의 겨레가 한자리에 모여 민족공동행사를 리행할것을 제의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것도 그것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지지를 과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부터 출발한것이었다. 민족적합심을 가지고있고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설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다.

북남관계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개선되는것이 아니며 민족공동의 합의의 리행을 떠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백마디 달랠만 민족공동의 합의가 리행되야 한다. 민족공동의 합의의 실천행동이 더 중요하다. 말로는 대화에 대해 떠들고 싶지만 행동은 그와 배치는 대결행동을 일삼는것은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대화와 협상,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외면하면서 의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미쳐달려왔다. 지난해 8월 교전직전까지 치달렸던 최후의 한 사태는 북남선언들을 무시하고 대결적대항 태도를 취한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의해 빛이진것이다. 그후 그들이 북남고위급회담을 모조리 무너트린 대화분위기를 말아먹은것도 북남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채버리고 분

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도전해나갔기때문이다. 코흔은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리행해나갈 때 통일과 번영의 밝은 전망이 열리지만 어느 일방이 거기에 머신하여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어실히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다. 민족공동의 통일대상을 기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분갈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 공화국은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리심판회하게 논의할것이다. 하지만 민족공동의 합의를 무시하고 그에 도전하여 북남관계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려는 반역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후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통일대상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는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도가 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그 리행을 위해 나서지는 사람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그 누구와도 손잡고나갈것이며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동일세력의 도전과 방해행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박 철 준

지금 우리 겨레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때 통일과 번영의 밝은 전망이 열리지만 어느 일방이 거기에 머신하여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어실히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다. 민족공동의 통일대상을 기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분갈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 공화국은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리심판회하게 논의할것이다. 하지만 민족공동의 합의를 무시하고 그에 도전하여 북남관계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려는 반역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후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통일대상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는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도가 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그 리행을 위해 나서지는 사람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그 누구와도 손잡고나갈것이며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동일세력의 도전과 방해행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박 철 준

동해주고있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내외반동일세력의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의 원천은 다름아닌 민족의 대단결이다. 하나의 지향과 목적으로 굳게 단결된 민족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조국통일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로 이어진다.

민족대단결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근본문제이며 담보이다.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길에 자기의 힘과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 겨레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분열된 우리 나라에서 애국을 하려면 민족대단결의 길에 나서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이 참다운 애국자이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제도, 정권과 신의의 차이 구애없이 기쁨,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합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며 일관한 정책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대

단결의 구성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민족애는 온 민족을 대단결위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내외반동일세력의 방해행동을 물리치며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 유훈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령도따라 민족대단결을 적극 실현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면서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다. 대결을 당하는 민족분열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의외와 야합하여 동족에게 팔방편한데 나서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애국적정도는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시대적요구에 역행하면서 애국을 일삼는 반역도배들을 후호도 용납치 않을것이다.

전세 조선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연의 뜻들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높이 받들어 민족대단결의 위업에 이 땅위에 존엄하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 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김 철 남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

범민권 남측본부가 강력히 항의

조국통일범민권연합(범민권) 남측본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남조선을 방문한 남측본부를 강제체포한 남조선 보수당국의 처사를 규탄하였다.

단체는 범민권 남측본부 인턴네트웍페이지가 28일부터 강제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의한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무슨 《심의결과》라는데서 범민권 남측본부 인턴네트웍페이지의 정보들이 《보안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고 비난하였다.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보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민주적, 반통일적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대결을 부추기는 악법인 <북인권법> 조작중단을 요구

세상을 불러들였기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동족 대결악법인 《북인권법》의 조작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악성종물

남조선당국의 고질적인 대결책인 반공화국 《인권》판대놓음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그 무슨 《북인권법》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유지》에 대해 떠들며 년중 회색과 결탁하여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조작해

남조선당국의 고질적인 대결책인 반공화국 《인권》판대놓음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그 무슨 《북인권법》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유지》에 대해 떠들며 년중 회색과 결탁하여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조작해

총궐기는 무죄다! 《박근혜가 유죄다!》

민중총궐기투쟁참가자들 당국의 탄압에 항의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의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투쟁 참가자들이 대한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다.

민중총궐기투쟁에 참가하였던 이들은 유죄로 소환장을 받은 1500여명의 로동자들과 각계층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로동자들은 자신들이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이유(《로동계약을 맺고도 총궐기참가여부를 따지고도 총궐기투쟁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가》, 《집회, 시위자유를 요구한가》, 《총궐기에 참가한가》)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집회에 참가하여 논쟁을 펼쳤다.

로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현 《정권》의 악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폐기하라

남조선의 문화예술인, 시민, 대학생들 규탄집회와 시위 전개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당국과 일본이 일본군성노예문제에 《합의》한데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례에 들어와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계속 전개되고있다.

2일에는 남조선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남조선당국과 일본의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폐기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노예와 시, 연극 등을 통해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남조선당국과 일본의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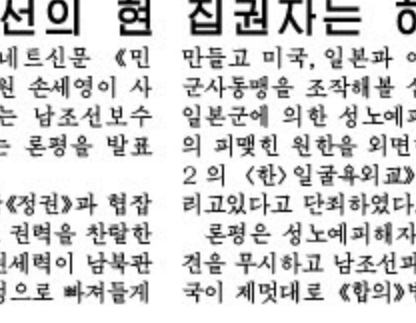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하루빨리 퇴진하라

제미동인턴네트웍 《민족공동》 편집위원 손재영이 사대매국을 일삼는 남조선보수당당을 규탄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리명박《정권》과 협잡하여 부정부패를 권력을 찬탈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반민주적, 반통일적 처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월한 길을 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자주권존중에 기초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세계 각국의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대소식으로 광범히 전파되고있다.

국제사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가 조선인민에게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준 라틴관, 정의와 평화를 지켜준 위대한 수호자의 억척분변의 강령적인 선언이라고 격찬하고있다.

조선인민들이 떠날수 없는 전성이라는 제양의 난파도둑에서 조국의 존엄과 안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 내신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만민의 끝없는 함호와 절대적인 신뢰심이 여기에 합쳐져있었다.

하기에 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지역 및 국제기구들은 침략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호소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자주와 정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고 우위를 우호적으로 대한다던 친선우호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모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에 열렬히 공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이다. 세인이 경탄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도, 만방에 빛나는 우리 인민의 존엄도 자주주의 리념을

따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혁명적 조이며 혁명방식, 혁명실현인 자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자주권존중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세계 나라와 민족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나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발전시키는것은 자기의 리익과 요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유리한 대외적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나라마다 처한 환경과 구체적현실이 다른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평등한 대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는 모든 나라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주성을 옹호하고 결지할데 대한 원칙이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은 주권국가의 존엄을 규정하며 그의 진보와 번영을 보장한다.

세계 나라와 민족들은 자주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친선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발전할것을 바라고있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결지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는것이 중요하다.

세계 나라들은 자주성을 옹호할 권리를 가질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에서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패권주의와 자기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쳐다보면서 큰 나라, 발전된 나라에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가 허용되면 나라들이, 민족들사이에서 불평등과 불화가 생기고 참다운 친선과 협조관계가 이루어질수 없다.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국제관계역사를 보면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자주권을 위협공격하고 불평등한 조약들을 맺은 다음 그것을 리용하여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강요한 실례들이 적지 않다.

세상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발전된 나라도 있고 덜 발전된 나라도 있다. 그러나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시하는 나라와 지시받는 나라가 따로 있을수는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같이 독자적인 자주권을 행사하며 발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자주권존중에 기초하여 맺어지고 발전하여야 하며 그래야 참다운 친선과 협조를 실현할수 있다. 자주권존중은 나라와 민족들이 모든 활동에서 결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며 국제적친선협조관계의 기초로 된다.

자주권존중에 기초하여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오늘날의 국제정세에 따른 필수적이며 정당한 신념이다.

세계적평화를 꿈꾸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은 오늘 극도에 달하고있다. 이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는데서 항상 국제적인 연합을 꾀한다.

그것은 저들의 부당한 행위와 「정의」의 외피를 씌우는 한편 저들의 침략과 간섭대상으로 되는 나라들에 대한 국제적고압과 압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들이 비를 적게 흘리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우선적인 「반동」, 「인권존중」, 「인도주의」를 반동적인 국제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기만적인 간판으로 써먹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주도하의 연합군이 벌인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이 바로 그러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패권야망실현에 장애로 되는 진보적나라들을 짓밟고자 하고자 하는 것들을 리용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이 친선적으로 단결하여 맞서는것은 사실적이며 강위적인 방도이다.

호상 편대하고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싸우던 제국주의세력의 그 어떤 분열문제에도 개입하여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그들의 독점지위를 약화하여 저들의 리익과 비위에 맞게 국제기구들과 정치, 경제제도, 법률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있다.

주되는 파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나라들에 강권으로 자기들의 부당한 사세를 내리막이라 하고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제국주의를 발동하여 제재공격을 휘둘러대고있다. 지어 유엔무대에서까지 주권존중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공판언히 무시하고 저들의 세계제국주의적 결과물들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를 날지꾸고 세력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리들을 범사회하여 조직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해제결의」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최근년간에도 미국은 추종세력들과 야합하여 유엔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을 날조하였다.

만약 유엔간판을 도용하여 저들의 세계제국주의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그대로 용납된다면 국제무대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지구는 불교적 약육강식의 세계로 될 것이다.

특정세력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쳐지는 모순에 찬 국제정세를 바로잡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행동을 짓부시는데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단결하여 맞서는것은 사실적이며 강위적인 방도이다.

호상 편대하고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싸우던 제국주의세력의 그 어떤 분열문제에도 개입하여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림장이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관계를 개선시켜나갈수 있다.

장장 수십년동안에 걸친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정책속에서도 우리 나라와 친선우호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대외정책이 안아온 커다란 성과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을 믿는 파리로 된다.

우리는 세계에 의한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 자주권존중에 기초하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지배와 간섭행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반제반미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선진국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희망의 동태, 승리의 기치를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배 금 희

여러 나라 신문, 인터넷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주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인터넷홈페이지가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워커》 지난해 12월 18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영국국립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앤디 브록스의 글 《김정일동지는 언제나 우리의 함께 계신다》를 실었다. 글은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 계승에 쌓아올린 업적을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평등함에 조선은 막대한 혜택을 보았으며 조선군사강국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6.15 북남공동선언 채택으로 조선통일의 확고한 토대도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평등함에 조선인민은 온갖 단결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로씨야의 이프루즈크인터넷홈페이지 《이프루즈크블로그》는 지난해 12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세계가 김정은최고사령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기간 국제사회는 가장 훌륭한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회상하고 하면서 군력을 철출할지 다져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완벽하게 지켜나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평등업적을 찬양하였다. 또한 세계는 병사들을 극진히 사랑하며 뜨거운 동지애에 기초하여

세계가 우러르는 최고사령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주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인터넷홈페이지가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워커》 지난해 12월 18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영국국립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앤디 브록스의 글 《김정일동지는 언제나 우리의 함께 계신다》를 실었다. 글은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 계승에 쌓아올린 업적을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평등함에 조선은 막대한 혜택을 보았으며 조선군사강국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6.15 북남공동선언 채택으로 조선통일의 확고한 토대도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평등함에 조선인민은 온갖 단결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로씨야의 이프루즈크인터넷홈페이지 《이프루즈크블로그》는 지난해 12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세계가 김정은최고사령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기간 국제사회는 가장 훌륭한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회상하고 하면서 군력을 철출할지 다져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완벽하게 지켜나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평등업적을 찬양하였다. 또한 세계는 병사들을 극진히 사랑하며 뜨거운 동지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헌법

스위스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43주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재사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헌법

이다. 헌법은 김일성주의의 인민위권의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다.

헌법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오늘날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부르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자

《영원한 친위전사의 모습》

여러 나라 단체 인터넷에 특집

영원한 친위전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해마다 12월 24일이 오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각지에 모셔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경숙수녀사의 동상을 찾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항일투쟁투쟁의 나날 전제 조선인민이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모습으로 사수하신 김경숙수녀사의 공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안도현 대사취지전투는 감동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경숙수녀사의 희생적 인 노력에 의하여 이 전투에서 김일성주석의 안전은 믿음직하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침략전쟁준비책동

미국이 반테러전은 빈말뿐이라고 주장

로씨야 국방장관 공시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테러전은 빈말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미국방위산업대변인이 국제대조적인 《이슬람교국가》에 대한 정보를 로씨야

미국이 반테러전은 빈말뿐이라고 주장

로씨야 국방장관 공시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테러전은 빈말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미국방위산업대변인이 국제대조적인 《이슬람교국가》에 대한 정보를 로씨야

로씨야 대통령 새로운 국가안전전략 비준

로씨야 대통령 푸틴이 새 국가안전전략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였다. 새 국가안전전략에는 테러와 극단주의의 전파 그리고 종교간, 민족간 불화가 《색갈혁

국방력강화에 계속 힘을 쏟을 림장 표명

이탈리아 국방력강화에 계속 힘을 쏟을 림장 표명

이탈리아 국방력강화에 계속 힘을 쏟을 림장 표명

국제적규탄을 받고있는 일본의 《조사포경》놀음

국제적규탄을 받고있는 일본의 《조사포경》놀음

국제적규탄을 받고있는 일본의 《조사포경》놀음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살림집건설 성과

배내수출장부가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건설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린 결과 2011년

과학기술소식

수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려는 제재에대응하기 위해, 리용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수소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시도

수소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려는 제재에대응하기 위해, 리용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